

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환경 변화와 서울시 정책 방향



박희석*

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
hspark@sdi.re.kr

왜,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인가?

○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미국발 국제금융위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 인과관계에 의해 생겨난 결과임

- 산업 및 경제적 요인

- 제조업에서 지식산업으로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미흡
- 자동차 산업의 생산성 하락 및 경쟁력 상실로 실업률 증가

1)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:

- Kansas State University (Ph. D in Economics), 한양대학교 (경제학 석사 및 학사)
- 포스코경영연구소(POSRI, 책임연구원), 고려종합경제연구소(연구원)
- 서울시 아파트가격의 버블진단 및 정책방향(SDI, 2007), 서울시 경기종합지수 개발에 관한연구(SDI, 2006), 부동산 경기변동이 서울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(SDI, 2004) 등

- 정치적 요인

-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로 전쟁비용 과다 지출로 경기침체 국면 심화
- IT 버블 붕괴이후 2000년대 초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장기간 지속되었던 호경기가 부시 2기 이후 경기침체 국면으로 전환

- 기타 요인

- 풍부한 국제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투기세력과 석유메이저들의 유가 폭리정책으로 제3의 석유과동에 의한 전세계적인 경기하락 국면 본격화



[그림 1] 금융위기의 실체

글로벌 금융위기는 현재 진행형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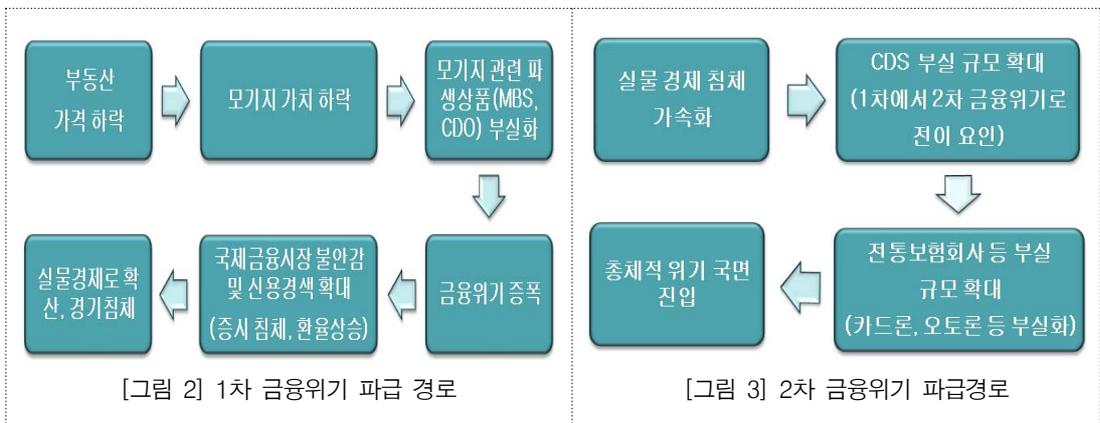
○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는 1차 금융위기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이며 향후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부실 자산의 규모에 따라 2차 금융위기로 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함

- 1차 금융위기 (2007년도 ~ 현재까지)

- 주택시장, 월가에 국한,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파생상품이 금융위기를 증폭
- 투자는행을 중심으로 고위험, 고수익 파생금융상품 투자 → 미국의 부동산시장 가격 하락 → 서브프라임 사태 (시장규모 1조 2000억 달러, 손실규모 6,000억 달러) 발발 → 미국 투자는행 및 세계금융기관 부실 (자본시장 57조 달러) 발생 → 기업 및 기관 전세계 투자 자금 회수 → 증시침체 및 환율상승 →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 ([그림 2] 참조)

- 2차 금융위기 (2008년 말 이후 ~ ?)

- 상업건물, 전통보험회사 등으로 금융위기 전파, 상업은행 부실로 총체적 위기 가능성 상존
- 경기침체 국면 장기화 → 주택가격 추가 하락 → CDS 부실규모(?) 확대 → 1차에서 2차 금융위기로 전이 → 총체적 위기 국면 진입 ([그림 3] 참조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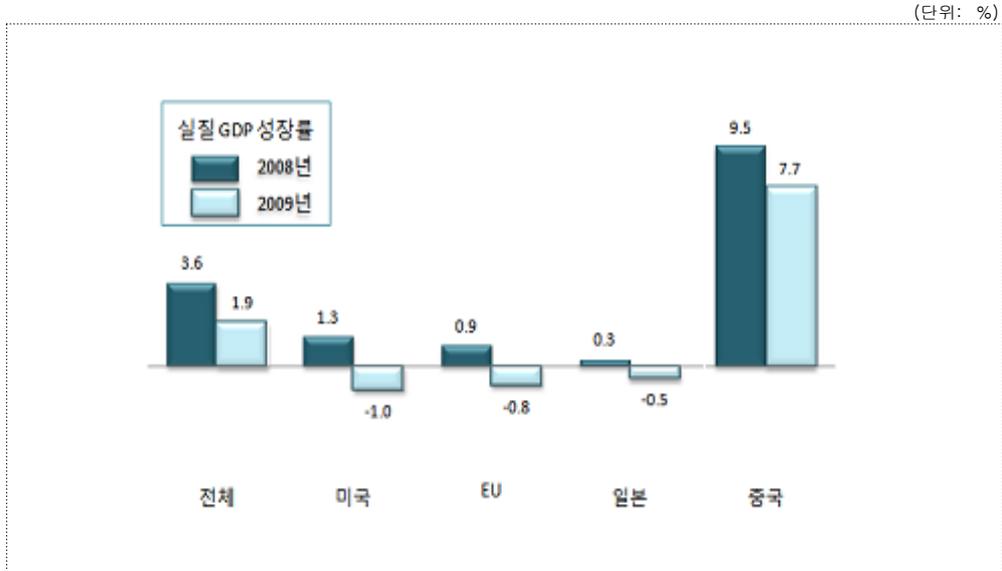
○ 2차 금융위기로 확대 가능성은 CDS 부실 규모에 의존

- 유동성 위기에서 신뢰의 위기로 확대
 - CDS 추가 부실 규모 불확실(?) → 모기지 연체율 상승 → 카드론, 오토론 등 대출채권 부실화 → 신용경색 재연 → 투자은행에서 상업은행으로 파산위험 확대 → 기업 파산과 주택경기 침체 지속 → 총체적인 금융위기 장기화로 확대
 - 향후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불투명 → 상업은행 부실 흡수 → 정상화 (CDS 부실 감소) → 금융위기 진정
 - 문제는 현재 CDS 부실 규모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현 금융위기는 진행 중이며 그 규모도 불투명한 실정임

미 금융위기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은?

○ 미국발 금융위기로 2009년 세계 경제성장률 1.9%로 경기침체 심화

- 미국, 일본, EU 등 선진국들은 금융 불안 및 주택경기 부진으로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에 따라 2008년 하반기 이후 경기 침체 가속화로 이미 마이너스 성장권에 진입
 - 중국 등 신흥개도국은 제조업 기반 경제구조로 실물경제 침체에 따른 성장 모멘텀 약화
 - 세계적으로 경기하강 국면 장기화와 디플레이션으로, 경제 회복까지는 최소 1~2년이 소요 예상
 -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경기는 개도국에 비해 더디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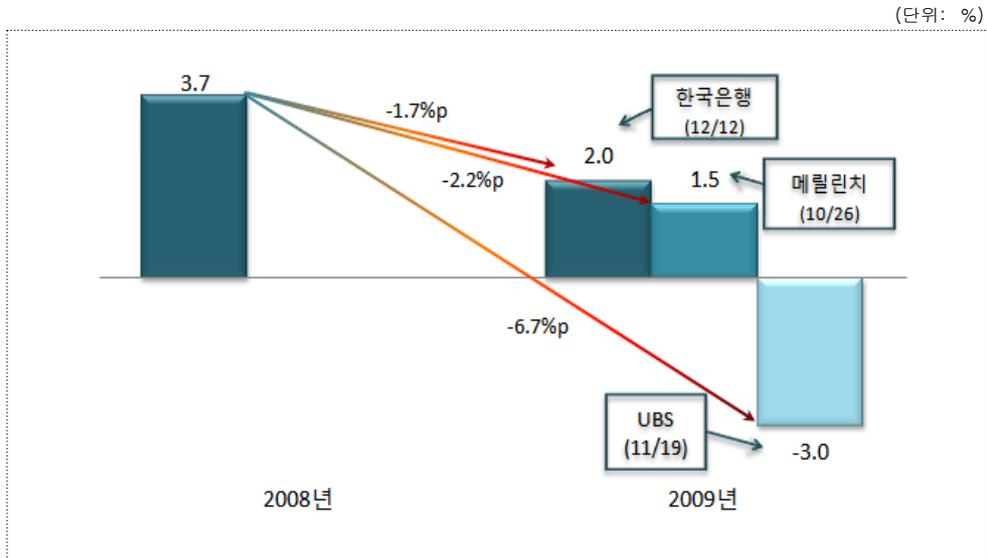


자료: 2009년 경제전망, 한국은행(2008.12.12)

[그림 4] 2009년 세계경제 전망

○ 2009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연간 2.0~3.0% 대로 성장 모멘텀이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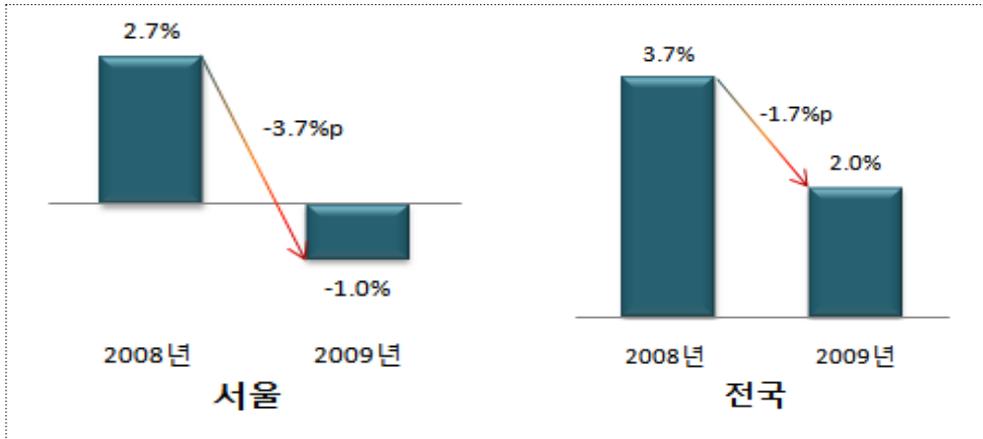
- 미국 금융위기로 2008년 4/4분기 금융시장 경색, 내수 부진 심화, 수출 증가세 큰 폭 둔화(10월 8.5% 한자리수로 하락) 등 위기국면 진입, 성장 추진력 상실
- 국내외 기관들은 2009년 국내 경제전망을 2.0%(한은)에서 -3.0%(UBS 증권)까지 전망하고 있어 실물경제 위기 확산에 의한 경기위축 정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
- 한은 등의 전망치는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재정지출 확대, 부동산 경기 활성화, 금융권 시장 안정화 등의 부양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를 가정한 목표 값임



[그림 5] 2009년 국내 경제성장 전망

○ 서울의 2009년 성장률 연간 -1.0%로 마이너스 성장세 진입 예상

- 서비스업과 소비 위주의 서울은 건설부문의 침체 지속, 급격한 내수 위축으로 서비스부문의 마이너스 성장세 반전 등으로 저성장시대 진입, 경기하강 국면 가속화 전망
- 상반기 -1.7%의 성장에 이어 하반기에도 -0.3%의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점차 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
- 최근 3년(2004~2006년)간 서울의 성장률은 전국 성장률(연간 2.0%)의 약 1/3 수준 (36.3%)으로 전국보다 경기침체 국면의 크기가 더욱 큰 것으로 분석



자료: 서울은 SDI에서 전망, 전국은 한국은행 2009년 경제전망 (2008.12.12) 참조

[그림 6] 2009년 서울 및 전국 성장 전망

서울시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?

- 서울경제의 급격한 내수침체에 대비하여 생계형 서민에 대한 재정운용 규모 확대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 시급
 - 서울은 서비스업 및 소비 위주의 산업 구조로 총체적인 경제위기 가시화에 따른 내수침체를 둔화시킬 수 있도록 재정운용 규모 확대 필요
 - 2009년 서울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반전되고 서울시민의 체감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층,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심화 전망
 - 마이너스로 성장률 감소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계형 서민에 대한 재정지원 및 대책 시급

- 수도권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통부문 SOC 투자 적극 검토
 -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하고 전국 대비 서울의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을 둔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 및 고용창출 유발효과가 가장 큰 SOC 투자 확대
 - 수도권 6개 광역 방사축과 서울시내 소순환선을 근간으로 하는 급행철도 등에 대한

대규모 투자 사업 필요

- 수도권외의 교통혼잡 완화와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쟁력 제고의 방안으로 기존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하부의 지하 고속 도로화 추진 검토
- 철도와 도로를 중심으로 수도권 연계 대규모 SOC 투자 사업으로 도시 경쟁력 제고

○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그린에코 산업 발굴 및 도심 특화형 중소기업 육성

- 녹색성장에 기초한 전략형 그린에코 산업과 도심 특화형 중소기업 지원으로 성장 원동력 창출
- 향후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서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인적자본 및 R&D에 기초한 환경, 에너지, 바이오 등 그린에코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할 필요
- 도심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도심 특화형 중소기업(문화·관광, 애니메이션, 디자인, 패션 등)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서울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 **SDI**